

가자 지구, 서안 지구 하마스, 왜 이스라엘 테러: 예루살렘 문제
성경말씀: 시122:1-9

10월 7일 하마스 로켓 5000발 공격, 옛새제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300여명, 부상자는 3,200여명으로 집계됐다.

팔레스타인 사망자 총 1,448명이다. 팔레스타인 측 전체 부상자는 6,868명으로 파악됐다.

양쪽을 합하면 사상자 규모가 만 명을 넘긴 셈이다.

가자 지구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이다.

오늘 가자 지역 주민들 남쪽 대피령, UN 기관 종사자들 모두, 지상전 임박

가자 지구

가자 지구(영어로는 Gaza strip) 길고 가느다란 조각 (*)

가자 지구, 서안 지구(*),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 지배, 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주지

가자 지구: 지중해 연안, 세종 시 정도의 면적(36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절반 크기(605제곱킬로미터),

남북으로 40km, 동서로 8km (*), 주민 240만 명(원조에 의지하며 살고 실업률 40%), 대중봉기(인

티파다)가 자주 일어나는 곳, 1987년 결성된 급진 이슬람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장악함,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지배함, 인티파다(대중 봉기)로 1993년 자치, 높이 6-8미터 장벽(*)

성경의 가자(창10:19, 행8:26), 총 19번

아브라함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고대 도시, 교통의 요충지

여호수아, 사사기에 주로 나오, 샷16장 1-3절 삼손과 창녀

4-31절, 그리고 소렉 골짜기의 들릴라, 눈이 다 빠지고 가자로 잡혀감. 거기서 두 기둥을 무너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곳

가자는 전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

삼상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하나님의 궤를 빼앗김,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귀족(*)

삼상6:17,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범법 헌물로 돌려드린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곧 1. 아스돗을 위해

하나요, 2. 가자를 위해 하나요, 3. 아스글론을 위해 하나요, 4. 가드를 위해 하나요, 5. 에그론을

위해 하나이며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에티오피아 내시

8:26,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

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 문제 문외한

개역성경 등의 주요 지명이 현실 지명과 너무나 많이 다르다(*).

애굽, 바로, 요단강, 가자, 바사 등 이런 것들 속히 바꾸어야 한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천주교, 개신교, 무천년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 이것으로는 세상 역사 이해 못한다.(*).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 로마서 9-11장을 읽어 보기 바란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미국의 대다수 침례교회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성경 그대로 읽고 믿는다.

천년왕국, 계시록 19-22장을 읽어 보라.

서안 지구(West bank) (*)

서안 지구는 '요르단 강 서쪽에 있는 독 지역': (*)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역, 3차 중동 전쟁(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점령지, 여리고, 베들레헴, 구 예루살렘 등, 면적 5,640제곱킬로미터(충청북도의

4분의 3), 제주도의 3배, 인구 300만 명(아랍인 230만, 유대인 70만)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기구(PLO), 지금은 파타(Fatah)라는 당파가 장악함,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 8미터 높이의 분리벽(베들레헴) (*)

하마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이슬람주의 정당으로서 군벌로 이루어진 테러 단체이다. 현재 가자 지구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하마스는 아랍말로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는 의미. 유대인들의 말로는 폭력을 뜻한다.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압제에 반항하는 대대적인 봉기(1차 인티파다)가 일어나자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가 떨어져 나와 아메드 야신이 설립한 정치 조직이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 여러 차례 발생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

이번 전쟁의 가장 큰 이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 아브라함 협정 체결(2020년 9월 15일), 바레인, UAE, 아브라함 협정 체결로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분쟁 등을 이유로 대립관계였던 걸프 지역(사우디아라비아 · 쿠웨이트 · 아랍에미리트 · 카타르 · 오만 · 바레인 등이 해당)의 아랍국가와 72년 만에 수교하게 되었다.

최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지금까지 이란을 대적하며 이슬람권의 맹주 역할을 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 왔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고립된 상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쟁 이후 아랍권 내 반이스라엘 정서 고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했다. 빈 살만(*)

이란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하지만 사실은 이번에 하마스를 지원한다.

이슬람: (*) 수니파(85%),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무장 단체: 하마스(가자 지구), IS(시리아)

시아파(15%), 이란,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등

무장 단체: 알카에다(국제), 탈레반(아프가니스탄), 헤즈볼라(레바논), 보코하람(나이지리아), 알샤비브(소말리아)

하마스의 목표: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극단적인 대립을 조장하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인들의 보복 심리를 충족시켜 자신들의 영향력을 올리려는 것

이스라엘, 이슬람(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원인: 종교

무려 4,000년 동안 지속되어 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 사람들 이리쿵저리쿵 떠들어도 아무 소용없다.

성경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스라엘 중동 문제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팔레스타인 땅, 누구의 것인가? 좌파 우파 떠나서 그냥 성경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씨,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셨다.

유튜브, History of Israel Palestine Conflict

여기의 그림들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 문제를 설명하겠다.

1. BC 2000-1700,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스라엘)

아브라함 언약, 롯하고 갈라선 뒤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창13:15).

창15: 19-21, 핵심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네 씨에게 주었노니

(15:19) 즉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문 족속과

(15:20) 헛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이삭, 야곱과 동일한 언약 갱신

2. 이집트 탈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 설립 BC 1000년경
초대 왕 사울(*), 둘째 왕 다윗(*), 예루살렘 수도,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 건축 (*)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
3. 솔로몬 사후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리됨, 10개, 2개(*)
4. (*) 북왕국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됨(BC 721년), 남왕국 유다는 바비론에 의해 정복되고 포로로 끌려감(BC606-BC536), 페르시아 고레스, 유다 다시 돌아감, 그 뒤 알렉산더 그리스, 그리고 드디어 로마가 가나안 땅을 지배함(BC 63년)
5. 그리고 이름을 팔레스타인을 바꾸어 버림(*)
6.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BC 4년경에 오심, BC 30년에 승천하심, 기독교가 지중해, 유럽, 소아시아에 전파됨, 유대인들 AD 70년에 타이투스의 예루살렘 점령, 다른 나라로 쫓겨남, 디아스포라
7. 610년경 무함마드 이슬람교 창시, 636년경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이 세력을 확장하며 중동, 지중해, 스페인까지 차지함(*)
8. 예루살렘 성전 터에 바위 사원을 건축함(*) 691년부터, 무함마드가 승천했다는 전설(*). 예루살렘은 유대교,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천주교)의 성지가 됨(*)
9. 11세기 십자군 전쟁, 카톨릭 교황의 야욕(*), 수많은 유대인들 죽음(*)
10. 1299년 오스만이라는 조그만 나라,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동로마 제국이 멸망함, 그리고 등장한 오토만(오스만) 제국이 1517-1917년까지 500년 동안 광대한 지역을 다스림(터키). 이 중 일부가 팔레스타인이다.(*).
11. 19세기 말부터 유대인들의 시온주의, 시온주의(히브리어: ציוניזם, 영어: Zionism 시오니즘[*]),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이다. 20세기 들어오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국함(*)
12. 1차 세계대전, 오토만 제국 패망, 1918년에 중동 지역 프랑스와 영국 지배로 바뀜
13. 1921년, 영국 다른 데는 자치를 허락하고 팔레스타인만 지배함
14. 1917년, 벨푸어 선언,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상 아서 벨푸어(Arthur James Balfour)가 유대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함
15. 이러한 동안 2차 세계대전 발발(*), 유대인 600만 명 홀로코스트
16. 영국이 발을 빼고 1947년 UN 중재안(*), 유대인 찬성, 팔레스타인 거부
17.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선언(*), 5월 15일 미국 인정
18. 1948년 제1차 중동 전쟁(*),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19. 1949년(*), 영토 확정, 가자 지구 이집트, 서안 지구 요르단 지배
20. 1967년 3차 중동 전쟁,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6일에 제압해 버림(*)
21. 이집트에 시내 반도 돌려주고 가자 지구 거안 지구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함(*)
22. 1972년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 이스라엘에 시비를 걸다가 결국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하고 서안 지역에 자리를 잡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만 정착함
23. 1987년(*), 1차 대중 봉기(인티파다)
24. 가자 지구(*), 자발리아 캠프, 사고가 발생함
25. 합의(*), 가자 지구 등 빨간 색은 팔레스타인, 살색은 유대인, 고동색은 둘 모두
26. 2000년 2차 대중 봉기, 샤론 총리 성전 산 방문
27. 유대인들 가자 지구에서 철수함. 서안 지구에 계속해서 정착함(*)
28. 하마스와의 갈등(*), 가자 지구 테러 세력 (*)
29. 가자 지구 봉쇄, 장벽(*)
30. 트럼프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성전 산 방문(*)
31.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테러(*)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루살렘(화평의 도시) 약속의 땅의 으뜸 도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가장 거룩한 기억의 보고이자 종교적인 경외심과 민족의식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승리의 현장이다. 이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남쪽 높은 곳에 위치하며 지중해와 요르단에서 각각 56, 3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은 지중해성 기후와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위 31°41'에 위치하지만 겨울에는 몹시 춥고 봄가을에는 37℃의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예루살렘은 해발 720미터 위치함.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남쪽으로는 힌놈의 골짜기가 있다.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옆에 올리브 산이 있었으며 여기서는 도시의 모습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곳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거룩하게 하신 곳이다(창22:1-24; 대하 3:1). 예루살렘 성전 산이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다. 이곳의 고대 이름은 살렘이었고(창14:18; 시76:2) 후에 여부스 족속이 이곳을 차지하였으므로 여부스라 불렸다(삿19:10-11). 이곳은 강력한 도시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이곳을 정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결국 다윗은 이곳의 요새를 파괴시켰으며(삼하5:6, 9) 그 후에 이곳은 예루살렘 혹은 '다윗의 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그 뒤 이곳은 왕국의 종교 및 정치의 중심이 되어 크게 영역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안의 성전에 참 하나님께서 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데 있다.

구 예루살렘

고대의 거대한 도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 예루살렘 시가지는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카톨릭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구역을 다 포함한다. 이 구 시가지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은 이슬람 구역이며 이 구역 안에는 이슬람교의 성소인 바위 사원과 모스크가 있다(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승천지).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성벽은 유대교 성지로서 가장 성스러운 곳 가운데 하나이다.(*).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으로 구성된다.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설리 후 곧바로 1차 중동 전쟁, 예루살렘을 서와 동으로 나눔(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점령함),

구 예루살렘은 동예루살렘에 속한다. 1967년 6일 전쟁 후 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관할권 예루살렘 문제의 핵심: 누가 구 예루살렘을 영구히 차지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께 희생 예물을 드린 곳, 다윗의 도시 당연히 우리 것이다 (*), (*)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그 땅을 떠난 이후, 특별히 무슬림 성지가 된 이후 그곳은 이슬람 사람들의 도시요, 수도가 되어야 한다. 거기를 차지해서 수도, 예배

앞으로 일어날 일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은 바로 구 예루살렘 시에 성전을 짓느냐 아니면 모슬렘 신전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큰 문제(슌12:1-2)

이스라엘은 합당한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던 모리아 산 - 지금 모슬렘들의 바위 사원이 있는 곳 - 에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니엘서의 70이레 예언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화평의 언약을 맺고 그 일을 도와 줄 것이다(단9:27).

그런데 7년의 한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는 가증한 일이 있을 것이다(단9:25-27; 마24:15; 살후2:4).

이때부터 7년 환난기의 후반부 즉 창세 이후로 없었던 대환난이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단12:1; 슌13:8-9; 마24:16-22; 계12:1-17).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강림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행 1:11-12; 슌14:1-5)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평강의 왕으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슌 14:12-21).

이때에 예루살렘은 영광의 왕이 거하시는 곳, 모든 민족들의 경배의 장소가 있는 전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이다. 말 그대로 화평의 도시가 될 것이다.

요약

온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시간표대로 진행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꺾맞추기 안 한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해야 한다.

구원받았나? 내 가족은? 전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지원해야 한다.

성경 말씀, 메시아, 사도들, 우리 믿음의 유산 시초

그러면서도 예배당 건축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한다. 매일 사과나무를 심는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 “속히 주님의 재림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휴거